

도서관계 각 단체의 2008년 계획*

설문내용

- ① 귀하께서는 2008년 도서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특히 새정부의 도서관정책에 대한 전망을 포함해주세요.
- ② 귀 단체(기관)의 2008년도 사업방향을 중점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알려주십시오.

경상북도사서연구회 김순연 회장



① 도서관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도서관인들에게 정보의 제공자로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걸 요구하고 있다. 과거 기관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많이 변화되기는 했으나 실용주의 정부에서는 좀 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도서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특히, 공공도서관의 상호대차는 정보 소외 지역민들에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사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다양한 이용자층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한 자질향상과 기존의 틀을 벗어나 이용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고의 전환이 절실하다.

② 경상북도 사서직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분과 및 동아리활동 등 연구회 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교류의 장으로 삼을 것이며, 경상북도 사서직을 대상으로 논문 및 원고를 수록한 『경상북도 사서연구회보』의 발간 또한 계획하고 있다.

* 단체명 가나다순으로 수록

[연락처: 김순연 회장, (750-901) 경북 영주시 가흥1동 2-69번지, Tel. 054-635-1240, Fax. 054-635-0648, sylib@hanmail.net]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박명진 회장)



① 2008년도에는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주관으로 한국도서관협회와 관중을 대표하는 각 협의회가 협력하여 범 국가적인 도서관 정책이 완성되어 도서관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각종 위원회에 대한 단순평가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폐지를 발표하였던 일은 현재 우리 도서관계가 처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국가발전의 근간이 되는 국민의 교육, 학습, 연구 활동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낳을 거라는 우려를 갖게 했었습니다. 다행히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존치되는 것으로 결정되기는 하였으나, 도서관 정책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 도서관계의 협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07년에 출범한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가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를 비롯한 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의 의견을 수합하여 통일되고 일관된 대학도서관 정책을 가지고 저작권법 등과 같은 대학도서관의 주요 현안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대처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이 올바른 자리매김을 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② 급변하는 정보환경 및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대학도서관이 학술정보서비스 기관으로 살아남고 이용자의 전문적인 정보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서들의 전문성 강화가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도서관은 사서들 각자가 자기계발을 통한 전문성 확보에 주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도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가능한 지원 체계를 확립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우리는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의 각 사업단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현재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온라인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 쟁점화, 나아가 이를 폐지하는 운동을 확산시키고, 학위논문공동이용을 통한 학술연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는 등 대학도서관 현안사항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연락처: 박명진 회장, (151-749)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Tel. 02-880-5280, Fax. 02-877-5636, mjinpark@snu.ac.kr]

특 집

대한출판문화협회 (백석기 회장)



① 답변없음

② 우선 을 상반기는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28회 국제출판협회(IPA) 서울총회(5.12~15) 및 제14회 서울국제도서전(5.14~18)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100여 개국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의 프랑크푸르트도서전 및 급부상하고 있는 북경도서전 등 세계 주요 국제도서전에 참가하므로써 우리나라 출판의 국제화 및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출판진흥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우여곡절 끝에 마련되어 시행에 들어간 개정 도서정가제가 입법취지에 맞게 추진되어 건전한 출판유통 질서가 뿌리 내리도록 하는 한편, 출판권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추진 연구 등 출판 인프라 기초 확립을 위해 법령 및 제도 장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그 밖에 현재 도서관계와 출판계간에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온라인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 출판산업진흥을 위한 출판진흥기금 지원 육성을 비롯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 우수학술도서 사업비 증액, 문화접대비 제도 홍보 확대 노력 등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들을 정부와 협의, 추진해 나가 고자 한다.

[연락처 : 백석기 회장, (110-190)서울시 종로구 사간동 105-2, Tel. 02- 735- 2701, 734-0790, Fax. 02-738-5414, webmaster@kpa21.or.kr]

어린이도서연구회 (양산숙 이사장)



① 2006년 10월 도서관법 개정, 2007년 6월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출범하여 도서관 발전의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 동안 각 도서관마다 관련부처가 달라 도서관정책조정이 힘들어 도서관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일관된 도서관정책조정으로 올바른 도서관문화와 철학이 수립, 발전될 것을 기대한다.

②(사)어린이도서연구회는 전국회원들이 지역사회에서 독서문화, 출판문화, 도서관문화를 바람직하게 가꾸는 활동을 해왔다. 올해 어린이도서연구회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동안 펼쳐온 활동들을 모으고 도서관활동가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기능이해와 심화된 자원 활동의 내용과 기술을 습득할 토론회와 연수회를 개최하여 도서관활동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서울시 마포구립 서강도서관 위탁운영체로서 기본이 바로 선 도서관으로서 공공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 이용자 중심의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할 것이다.

[양선숙 이사장, (121-839)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2-18, Tel. 02-3672-4447, Fax. 02-3672-4449, edu@childbook.org]

인천공공도서관 사서연구회(왕종주 회장)



① 도서관정책위원회가 폐지되려던 위기에서 도서관계의 긴밀한 협력으로 간신히 모면하게 된 걸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위원회 폐지위기는 새정부의 도서관에 대한 마인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경제적 측면으로 본다면 계량화 할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해 실효성이 보이지 않는 도서관 사업이 새정부에는 의미가 없어 보일런지 모른다. 진정한 지식경제의 경쟁력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지속적인 국가경쟁력을 위하여 도서관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기를 바라며, 2008년도는 도서관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온 국민이 도서관에 대한 깨어있는 마인드를 갖게 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② 가장 먼저 공공도서관 사서직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기반으로 각종 도서관 업무정보 및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소외된 단체에 대한 도서기증운동 같은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여 활동하는 사서연구회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직원들의 참여율을 높이하고자 한다.

다음, 연구회 홈페이지 콘텐츠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직원들간의 정보공유와 도서관 현안문제 및 각종 사례 등 정책제안을 위한 충분한 백데이터를 갖추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워크숍 등의 학습의 자리를 마련하여 모든 직원들에게 도서관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연마하는데 자극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연락처 : 왕종주 회장,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창앞길 9(구월동 1137-1), Tel. 032-421-1153, Fax. 032-437-4718, king99@paran.com]

특 집

전국전문대학문헌정보학협의회 (양재한 회장)



① 선진화와 실용주의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다수 국민의 선택으로 출발하였다. 국가와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이 선진화 할 것으로 기대하나, 도서관계는 걱정스러운 면도 있어 보인다. 작은 정부를 통한 효율성과 실용주의 노선 강화로 인해 인간의 삶의 문제와 관련된 분야인 교육 문화공간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도서관계는 지방화 시대를 맞으면서 다양한 이용자군을 확보하였고, 지방 분권을 전제로 한 도서관 관련법이 제정된 상태라 다수의 이용자군과 도서관계가 노력한다면 2008년도 도서관계는 희망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전문대학에서도 문헌정보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학위 수여 대상교와 학과에 대한 승인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7년부터 하고 있다. 이에 회원교인 부산여자대학, 송의여자대학, 인천전문대학, 대림대학, 동원대학, 창원전문대학 문헌정보과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전공심화 과정 개설승인 요건에 맞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다수의 대학에서 2008학년도에 개설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전문대학에서 '전공심화 과정'을 이수해 문헌정보학사 학위를 취득하면 2급정사서 자격취득도 가능하게 된다.

본 협의회에서는 2003년도부터 '어린이독서지도사 자격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자격과정은 (사)한국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창원전문대학을 책임교로 하여 송의여자대학, 대림대학, 동원대학 문헌정보과에서 자격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문대학 교육에 필요한 기본교재를 『전국전문대학문헌정보학교육협의회 총서』로 간행하고 있다. 2007년에 『문헌정보학개론』이 총서 1호로 간행되었고, 2008년도에는 『문헌분류학』, 『문헌목록학』이 총서 2호, 3호로 간행될 예정이다.

[연락처 :양재한 회장, (641-771) 경남 창원시 두대동 196 창원전문대학 문헌정보과, Tel. 055- 279 - 5142, Fax. 055-279-5131, yjha@cw.ac.kr]

책읽는사회민들기국민운동 (도정일 대표)



① 2007년은 우리나라 도서관 문화 발전의 역정 속에서 매우 뜻깊은 해였다. 「도서관법」이 제정되었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발족하였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수주의적 정부가 집권했을 시 공공서비스 영역이 축소되어 온 궤적이 있다. 신 정부는 ‘작은 정부’를 중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최근의 도서관 발전에 적지 않은 도전이 있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이런 때일수록 도서관인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전진하여 도서관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②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은 모든 시민이 정보와 지식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기반과 기회를 조성하고 확대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와 읽을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게 하며, 시민의 자율적인 창조적 기회 창출 노력을 돕기 위한 제반 사업을 기획, 지원 및 추진할 예정이다. 2008년에는 독서문화함양사업으로 ‘북스타트’, ‘문화예술의 순회대사’, ‘사회적 독서’ 및 연구, 교육, 홍보사업을 펼칠 계획이며, 특히 ‘북스타트’ 시행 지역을 전폭 확대할 계획이다(현재 전국 55개 지역에서 실시). 특히 3세 전후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북스타트 플러스’와 소외층을 위한 ‘찾아가는 북스타트’를 본격 실시하려고 한다. 도서관 사업으로는 10번째 어린이전문도서관인 정음기적의도서관을 올 봄에 개관할 예정이며 작은도서관 조성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하에 한 도시에 책 읽는 문화 및 도서관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책 읽는도시 김해’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다.

[연락처 : 도정일 대표, (110-809)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25-1 일석기념관 2층, Tel. 02-3675-8783~4, Fax. 02-3675-8788, read3@chol.com]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김종성 공동대표)



① 기본적으로는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노력과 활동이 지속될 것이며 양과 질 양 측면에서 도서관 문화가 발전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 수년 동안 도서관 관련 제도와 정책의 기반이 강화되었고, 무엇보다도 도서관에 대한 민간의 경험과 이해가 확대되면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효용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새 정부의 공공영역 구조조정 기조나 영어교육 강화 등의 정책으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인프라 개선(인력확충 등) 노력이 위축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도서관계와 문헌정보학계를 비롯하여 관련 시민단체 등이 연대하여 민첩하고 협력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특 집

② 학도넷 운동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로 독서문화저변 확대를 기하고 이를 통해 평등교육과 문화운동을 이루고자 한다.

2008년도에도 사서연수와 학부모자원활동가연수를 통해 학교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건강한 문화활동을 꾸준히 제시하여 학교도서관을 문화 운동의 핵심으로 설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계간으로 펴내는 「학도넷소식지」는 학교도서관의 다양한 주체들의 직접 참여로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의 장으로 삼고자 하며, 학교도서관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사업으로 ‘자녀의 학교도서관 찾아가보기’ (3월중 진행), ‘학교도서관 소식지 만들기’, ‘학교도서관에서 책임어주기’, ‘책임기 멘토링으로 어른과 아이가 친구되기’, ‘우리 학교도서관에 좋은 책 갖추기’, ‘책축제 기획하기 공모전’ 등으로 축제문화만들기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매월 둘째 토요일에는 학교도서관운영주체인 학생, 교사, 사서, 학부모들이 직접 만나 소통하는 장 마련을 위해 문화기행과 박물관학교를 개최할 계획이다.

[연락처 : 김종성 공동대표, (110-0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27, Tel. 02-720-7259, Fax. 02-720-7259, hakdonet@hanmail.net]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양병태 원장]



① 2007년은 도서관계에 대통령 직속으로 범부처 차원의 도서관정보화정책위원회가 출범함으로써 국가적인 도서관정보화 정책을 수립·조정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위원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도서관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2008년의 도서관계는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지향하며, 도서관간 장벽을 허물고 협업 기반의 도서관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도서관 2.0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를 통해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기반의 도서관을 구현한다는 미래지향적인 도서관정책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②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핵심 과학기술 정보자원 개발 및 공동 활용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국내의 핵심정보자원을 확충하고, 국가 전자정보 컨소시엄, 학·협회 등 다양한 정보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도서관정보센터 등 정보커뮤니티간 정보공유 협력망을 체계화하고자 한다. 또한, 사실정보 DB와 학·협회 정보화 지원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

가 고유정보 콘텐츠 개발을 가속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정보 자원을 개발하여 공유할 수 있는 국가가용학술자원맵(WiseCat)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이용을 확산시켜나갈 것이다. 국내 학술정보 글로벌유통 서비스인 “KoreaScience”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세계과학기술정보위원회(ICSTI) 총회를 6월에 개최함으로써 국제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해 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KISTI Service 2.0을 통해 고객중심의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고자 한다.

[연락처: 양병태 원장, (130-741)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회기로 66. Tel. 02-3299-6123, Fax. 02-3299-6109, seoklim@kisti.re.kr]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곽동철 회장]



① 최근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신장한다는 명목 하에 이용자의 권리를 여러 측면에서 축소하여 왔다. 그에 따라 이용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도서관의 기능 역시 위축되어 왔다. 그러던 중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탄생으로 이용자의 권리와 저작권자의 권리가 균형을 이루는 정책 수립이 가능해져 지식정보화 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는 기대에 차 있었으나, 실용주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새 정권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폐지를 발표하여 도서관정책이 실종되지 않을까에 대해 우려한 바 있다. 위원회의 존치는 결정되었으나 전 도서관인과 의지와 단결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② 2007년 12월 12일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이하 '대도연')가 창립되어 회장이 선출되고 2008년 1월 21일 3개 대도협이 이사 및 감사를 추천하며 현재 이사회 및 감사단 구성을 마친 상태이다. 또한 2008년 1월 31일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사무총장을 선임하였으며 대도연 사업을 심의·선정하였다.

2008년은 3월 대도연 사무실을 개설하고 한국도서관협회와 대도연 간 MOU를 이행하도록 하며, 6월에는 대도연 사단법인 등기를 통하여 법인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법」, 「온라인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가칭)대학도서관진흥법」 등에 대한 제도 개선 사업을 계획중에 있다. 「저작권법」의 개정은 2004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현재 대학도서관의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2007년 12월 26일 대도연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에 ‘저작권법 개정방향’을 제시하여 대학도서관의

특 집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2008년에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저작권법」 개정 T/F팀을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에 설치·운영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온라인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저지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입법을 저지하는 이유 및 국회에 상정된 법률안의 부당성에 대해 이미 2008년 2월 15일 배포한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성명서’에 대한 국립중앙도서관의 검토의견』에 대한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의 입장”을 배포한 바 있으며, 이 법률의 제정을 저지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대학도서관에 관한 법률은 현재 「도서관법」의 3개 조항이 전부로 「도서관법」을 모범으로 한 「(가칭) 대학도서관진흥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이 법률의 입안을 Consortium 개선, Big Deal 타파, Web DB의 가격 및 가치 검증 등을 통한 전자자료공동구매사업, 대도연과 학공협의 통합, 학공협 운영 모델의 개발, 학위논문공동이용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한 학위논문공동이용 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며, 교육출판사업으로 『대학도서관 명부』(연간), 『대학도서관(대학도서관연합회지)』(반 연간), 그외 단행본을 출판할 계획이다.

[곽동철 회장, (360-764)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6번지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Tel. 043-229-8407, Fax. 043-229-8310, kwackdc@cju.ac.kr]

한국도서관·정보학회 [이경호 회장]



① 2008년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해인 동시에 국회가 새로이 구성되는 등 정치적 환경이 급변하는 해이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도서관계는 겨우 걸음마를 시작하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관련하여 다소간의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는 중앙정부나 당국자, 정책입안자를 중심으로 우리의 주장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갖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본다. 따라서 우리 도서관계는 새로운 변화와 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고객인 이용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금년은 특히 공공도서관계와 학교도서관계의 향후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본다.

② 한국도서관·정보학회에서는 2008년도에 특히 현장과 학계를 아우를 수 있는 사업들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춘계 및 추계학술발표회의 주제를 현장과 밀착될 수 있는 내용들을 대폭 강화하여 포함시키고 발표자들도 현장

의 실무경험이 많은 분들을 모시고자 한다. 아울러 별도 워크숍을 통해 현장중심의 적절한 주제들을 특강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개최할 계획이다. 소식지발간(웹진)과 회원확충, 학술상 등을 통해 학회의 내실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연락처 : 이경호 회장, (712-714)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Tel. 053-850-6352, Fax. 053-850-6359, khlee@daegu.ac.kr]

한국도서관협회 대구·경북지구협의회 [이영한 회장]



① 2008년은 새 정부가 시작되고 「도서관법」이 전면 개정되어 지역 도서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이다. 특히 대통령 직속하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존속되므로써 그동안 지역공공도서관 설립에 있어 이원화 문제, 사서정원, 예산 등의 문제도 점차 해결되지 않을까 한다. 대학도서관의 경쟁력 강화 정책 추진과 특히 학교도서관 발전에 있어 사서교사 배치, 도서관 시설 현대화 등 지금보다 많은 예산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② 1962년 창립된 우리 대구·경북지구협의회는 창립정신에 따라 매년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지식 공유를 위한 지역순회 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해 오고 있다. 2008년에는 각종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수집·정리한 『도협 21집』 발간,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해 공헌한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수여되는 ‘학교도서관부장상 표창’, 그리고 상반기에 2008년 총회와 지식함양을 위한 춘계세미나 개최, 하반기에는 추계세미나 개최 등이 예정되어 있다.

[이영한 회장, (700-422)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길 28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Tel. 053-420-2701, Fax. 053-420-2750, lyh@dgedu.net]

한국도서관협회 부산지구협의회 [전희준 회장]



① 문화란 한 민족의 총체적 생활양식이요, 선진국의 척도는 사회적 숙성과 문화적 품격이라고들 말한다. 무릇 정신세계의 토양은 독서로써 비옥해지고, 정신세계의 비옥한 토양에서라야 사회는 숙성되고 문화는 꽃을 피운다.

선진화 원년을 선포한 새 정부는 경제 활성화 정책과 병행하여 문화

특 집

창달에도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

② 지역사회 독서진흥 및 문화 창달을 위한 발간사업으로 지역의 독서진흥과 문화 창달 및 시민독서생활화를 위한 리플릿, 『마음밭 걸우기』(격월간 / 1,000부 제작·배부)를 제작하여 유관기관, 관련단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며, 연 2회에 걸쳐 『한국도서관협회 부산 지구협의회 회보』를 발간할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 산하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사서 및 사서교사의 사기양양을 위해 우수사서 및 사서교사(초·중·고등·대학(교)) 10명에 대한 표창도 예정되어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사업 지원의 일환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양서 읽기를 위한 도움 활동으로 독서지도교사와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과 학년별 권장도서를 선정하고 목록을 배부할 예정이다.

[전희준 회장, (616-09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51-1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內, Tel. 051-810-8251, Fax. 051-817-3407, ksdwind@naver.com]

한국문헌정보학회 (정동열 회장)



① 2008년 우리나라 도서관계는 또 다른 변화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2006년 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성공적 개최에 따른 파급효과와 2007년에 시행된 「도서관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활동이 채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어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2007년에 학계와 현장을 중심으로 연구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비롯하여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새 정부의 도서관정책 방향에 관계없이 도서관 현장과 학계가 단합된 노력과 열정으로 더욱 발전된 도서관 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② 한국문헌정보학회는 지난 수년간 추진해 온 학계-현장 연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2007년에 추진된 국가도서관정책 관련 연구는 물론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도서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계와 도서관 현장이 한층 더 밀접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활동은 학회의 발전은 물론 실무 현장도 함께 발전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2008년 춘계학술대회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공동으로 전반적인 도서관경영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학계와 현장이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는 만남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추계학술대회는 한국정보관리학회와 공동 학술대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양 학회가 공동으로 미래 도서관 서비스와 평가에 관련된 주제로 모든 도서관인들이 참여하는 전국적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연락처 : 정동열 회장, (120-750)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Tel. 02-3277-2231, Fax. 02-3277-3496, dyjeong@ewha.ac.kr]

한국비블리아 학회 [서혜란 회장]



① 2007년 말 뜬금없이 전해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및 기획단 폐지 소식은 실로 충격적이었다. 일치단결된 도서관계의 노력 덕분에 좋은 결말이 예상되어 펍 다행이다. 비록 첫 출발이 어렵기는 하였지만, 오히려 이런 시련을 도서관계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올해는 지난해에 전례 없이 많이 이루어진 각종 연구프로젝트와 각종 도서관 관련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즉 각종 연구결과가 보고서로만 남지 않고 현장에 적용되어 각종 도서관서비스의 실질적인 발전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해묵은 과제인 공공도서관 확충과 서비스 강화,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 배치와 교육기능 강화 문제에 계속 매진해야 하겠지만,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던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의 산적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거시적 차원의 정책을 입안하고 조정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② 한국비블리아학회는 정기사업으로 봄과 가을에 각각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할 것이며, 6월과 12월에는 『한국비블리아학회지』를 발간할 것이다. 웹정보처리와 웹기반 정보서비스를 기획 주제로 선정하여 진행될 춘계학술발표대회는 문헌정보학계는 물론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계학술발표대회는 한국기록관리학회와 공동개최를 통해 학제적 연구발표를 지향함으로써 인접학문과의 교류를 지속할 예정이다.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가 작년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평가를 통해 다시 한번 등재학술지로 인정을 받은 만큼 올해에도 역시 학술지에 수록되는 학술논문의 관리에 노력함으로써 학술지의 내실화를 도모하려고 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그동안 쌓인 학회 회원들의 연구 성과를 모아 단행본으로 출판하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현재 첫 번째로 메타데이터 관련 연구서를 기획하고 있다.

특 집

[연락처 : 서혜란 회장, (617-736) 부산광역시 사상구 과법동 산1-1 신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Tel. 051-999-5290, hrsuh@silla.ac.kr]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권영탁 회장



①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사회 각 분야에서의 본격적인 경쟁과 변화가 전망된다. 그러나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좋지만 좀 더 진지한 고민을 거쳐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직과 법,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실효성 부재의 이유를 들어 폐지를 결정했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다시금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다행한 일이다. 지식기반 경제하에서 통합적인 정보의 수집과 관리 및 이용은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도서관인 모두가 합심하여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서관 문화의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② 대외적으로는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한국도서관협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정부 및 대학당국에 대학도서관 현안과 관련하여 올바른 정책과 방향을 제기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원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전자정보의 공동구입과 이용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대학도서관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부 지원으로 수행 예정인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의 대학도서관 평가사업을 통해 대학 당국의 지원을 유도하고 대교협에서 진행하는 대학종합평가에서도 도서관이 대학의 중심기구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대내적으로는 기존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회원관간 유대를 강화하고 도서관장회의, 관리자 세미나, 실무자 워크숍 등의 연수 프로그램 개최 시에는 대학도서관 운영자들의 실질적인 재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해외 유수의 선진대학 도서관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금년에는 미국동부나 유럽지역의 대학 도서관을 방문 견학할 예정이다. 끝으로 협의회 홈페이지를 보강하여 각종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업무 처리와 회원간 교류를 활성화하며, 협의회 현안과 발전방안 연구를 위해서는 협의회 내 상임위원회와 산하 각 분과 위원회의 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권영탁 회장, (390-711) 충북 제천시 신월동 579번지 세명대학교 민송도서관, Tel.043-649-7010, Fax. 043-645-1785, hjung1122@semyung.ac.kr]

한국사립문고협회 (진인문 이사장)



①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가까이 곳에서 편리하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사립문고가 활성화 할 수 있는 법적·환경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민·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립문고가 전국적으로 2,000개 이상 되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활성화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첫째로 신간서적의 부족이다. 특별한 재정지원이나 후원없이 열정만으로 운영하다보니 책들이 낡고 오래된 서적들이 많아 어린이, 주부들이 방문하지만 새로운 서적이 부족하여 외면하는 현실로 이런 문제를 국공립 도서관에서 관외 대출 범위를 확대하고 신간서적 지원에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는 상근자 문제이다. 사립문고 대표자들이 개인들의 직업에 종사하다가 남는 시간을 이용하여 사립문고를 개방하고 있어 문고 개관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개방되어 문고 상근자들이 필요한 실정이다. 공공근로인력을 사립문고에 지원하는 방법과 정년 퇴임하신 교사, 공무원들이 상근자로 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

셋째는 프로그램지원이다. 독서지도·독서캠프·문화유적지탐방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사립문고,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이 서로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과 법적 제도가 필요하며 사립문고와 작은도서관이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작은도서관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소득 2만불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나라의 기초학문과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사립문고, 작은도서관, 국공립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서로 연계, 협력하고 법적인 제도 개선이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농·어촌 마을 도서지원사업’, ‘해외 한국인 거주마을에 사랑의 도서 보내기 운동’, ‘사립문고운영을 위한 3박4일 독서학교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해외한국인거주 마을에 사랑의도서보내기 운동은 어린이 교민자녀, 3세 후세들에게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고 마을마다 사립도서관을 설립하여 공부방을 마련하고 한국을 사랑하고 한글을 배우고 기억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운동으로 서적 80,000권과 학용품 5,000세트는 키르기스공화국, 태국, 가나, 콰테말라, 터키, 우간다, 호주,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 러시아 등 36개 나라에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전달, 마을마다 공부방과 사립도서관

특 집

겸용 마을 도서관이 설립되어 한국을 알리는 민간외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독서진흥사업으로, 제10회 전국기념대회, 해외 34개국에 사랑의 도서보내기, 전주시 온고을 독서교환장터, 사천시 어린이독서캠프, 제10회 부산시독서왕선발대회, 농어촌마을 독서지원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연락처 : 진인문 이사장, (425-82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2동 978-1번지, Tel. 031-401-6458, Fax. 031-401-3895, dongsok717@hanmail.net]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신인식 회장]



① 시각장애인도서관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특수 자료의 제작 공급을 위해서만 노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8년은 새 도서관법의 시행 2년차로, 시각 장애인 도서관들도 이제까지와는 달리 법에서 규정한 바대로 공공도서관의 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이용 대상 장애인의 범위 확대와 이웃 공공도서관들과의 협력망 강화 등의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몸부림치게 될 것이다.

② 우리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는, 2007년에 새 도서관법에 의하여 시각장애인도서관들이, 법적으로 특수 도서관에서 공공도서관으로 지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특수 자료의 중복 제작을 줄이고, 전국의 공공도서관과 효율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우리 협의회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전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특수 자료의 서지 사항 및 소장처를 디지털화하게 된다.

또 5월에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시각 장애인 도서관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10월에는 관장 및 직원들이 일본의 점자 도서관 4곳 정도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도서관을 선진화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그리고 KDC 개정판에 답을 특수 자료에 대한 목록 기법을 연구하기 위해, 특수 자료를 비교적 많이 소장하고 있는 8곳에 근무하는 사서들로 금년 1월 말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까지 안을 마련하고 작성된 안을 관련 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연락처 : 신인식 회장, (100-051)서울시 중구 회현1가 한중빌딩 3층 308호, Tel. 02-736-3000, Fax. 02-774-6958, sinhyup@chol.com]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정문영 회장]



① 도서관 사서의 단결된 힘으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계속 존치케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도서관은 국민이 이용하는 문화, 교육의 중추기관으로서 명실상부하게 힘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는 선진국의 경우처럼 도서관에 대한 투자가 곧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도서관인들을 주축으로 새로운 도서관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새정부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지원 할 것을 기대한다.

②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는 1973년 4월 16일 창립 회원교 13개교를 중심으로 발족되었으며 현재까지 회원교 51개교가 가입하여 36주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는 전국의 신학도서관 발전을 도모하며 신학연구 및 목회사업 발전을 위하여 2008년도에는 신학도서관의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신학도서관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또한 교회 도서관의 커뮤니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협력할 것이며 신학분야 전자저널 및 WEB-DB의 공동구매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하계, 동계 세미나 및 워크숍도 개최할 것이다.

(연락처 : 정문영 회장, (330-704) 충남 천안시 안서동 115번지 백석대학교 백석학술정보관, Tel.041-557-9648, Fax. 041-550-2655, cschoi@bu.ac.kr]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김 암 회장



② 본 협의회에서는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의학사서들의 자질 향상과 의견교환의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마다 각종 워크숍을 개최하고 의학용어강좌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각 의학도서관 사서들에게 주제전문사서로서의 의학사서가 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는 주요사업으로는 MEDLIS시스템을 이용한 종합목록 구축과 기사 색인 DB구축, 그리고 종합목록을 이용한 회원도서관끼리의 상호대차가 있으며 수시로 복본교환을 실시하고 있고 국내외학회지를 각 학회로부터 기증받아 의학도서관에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또한 의학도서관의 부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학 DB컨소시엄도

특 집

구성하고 있다. 특히 MEDLIS시스템을 이용한 상호대차는 연 20만건에 이르며 협의회 회원 간에 상호대차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협의회 단체회원 가입조건이 안되는 의학연구 관계자들의 요청으로 2004년 3월부터는 개인회원제도를 실행하여 의학정보 공유에 기여하고 있다.

본 협의회는 일본의학도서관협회와 양국의 정기총회에 참석해 발표를 하는 등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으며 국내에 없는 문헌은 일본의학도서관협회와 상호대차를 하는 등 의학도서관계의 발전을 위해 국제적인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는 주제전문사서로 의학사서제 시행에 힘쓰고 의학학술정보 공유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의학관계 단체들과 협력을 진행하여 의학정보화에 힘쓸 것이다.

[연락처 : 김 압 회장, (110-310)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9-4번지 윤현궁 SK HUB B동 726호, Tel. 02-725-5831, Fax. 02-723-5832, kmla@kmla.or.kr]

한국정보관리학회 [장혜란 회장]



① 최근 몇 년 동안 도서관계는 정보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종합적인 계획을 실행하여 왔으며 관련 법과 제도를 꾸준히 정비함으로써 괄목할 만한 외형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며, 내용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는 진정한 정보기관으로 성장하려면 상당한 국가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실제로 선진 외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도서관의 자료와 서비스 및 이용자 수용성은 뒤떨어져 있다. 따라서 실용, 변화, 선진화를 강조하는 새정부에 대한 도서관계의 기대는 자못 크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공공인프라인 도서관에 대하여도 기업적 논리로 접근하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다. 2008년에도 계속 희망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도서관 및 관련 단체 구성원들의 부단한 협동과 노력이 절실할 것으로 생각된다.

② 한국정보관리학회는 2008년 새해를 맞아 보다 많은 회원들이 학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우리 학회가 추진해 온 국제화 사업이 올해도 계속될 것이며, 내실화를 위한 체제 정비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5월에 개최되는 정보관리강좌는 학계, 도서관계, 연구소, 산업체가 함께 관심사를 논의하는 광장이 될 것이며, 8월에 개최되는 전국학술대회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기성 연구자들은 물론 신진 연구자들도 참여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할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 될 것이다. 11월에는 정보 분야의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와 공동으로 대규모의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며, 이와 같은 시도는 우리 분야 종사자들의 네트워

크를 강화하고 유대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연락처: 장혜란 회장, (443-760) 경기도 영통구 이의동 산 94-6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회 내 사무국, Tel. 031-249-9165, Fax.031-249-9164, kosim@kgu.ac.kr]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이덕주 회장]



① 새 정부 하에서 주요교과 위주로 교육예산이 집중 지원됨으로 인해 학교도서관에 대한 예산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다른 편에선 현재의 부모 사교육능력에 따라 자녀의 학력이 좌우되는 교육 시스템에 대한 불공정한 문제가 많이 부각 지적된다면 그에 대한 대체 보완으로 학교도서관이 주목 받을 수 있으리라 본다. 전반적으로 「학교도서관 진흥법」시행 원년을 맞이하여 교육복지적인 측면에서 학교도서관 정책이 재정립 되리라 본다.

②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는 우선적으로 조직적의 기본적인 연락체계와 회의 체계를 보다 공고히 가져가면서 전국의 700명 사서교사들이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데 최우선의 목표를 둘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사서교사 연수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독서교육 정책이 학생들과 교사들을 과도하게 밀어붙여서 장기적으로 책과 멀어지는 일을 막을 것이다. 현행 학교도서관의 정책 법률적 한계를 드러내는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학교도서관 정책이 한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점 추진 사업이다.

[연락처 : 이덕주 회장, (131-800)서울시 중랑구 망우 1동 252-1 송곡여고 도서관, Tel. 02-434-6753, Fax. 02-438-8508, smjesus@chol.com]